

『현대유럽철학연구』 60집, pp.277~305.

(舊 한국하이데거학회/한국해석학회 통합 학회지)

DOI

위화(余華)의 『제7일』에 나타난 불평등과 ‘경제적 인간’*

김명희(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교수)

【한글요약】

중국이 개혁개방을 내세우고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실행한지 35년이 넘은 시점인 2013년에 위화(余華)의 『제7일(第七天)』이 출판되었다. 중국의 21세기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가입과 2008년 베이징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유인 우주선 선저우(神舟:Shen Zhou)호의 비행 성공, 2010년 상하이엑스포(EXPO)의 원만한 개최와 함께 계속되는 고속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성장의 결실을 제대로 분배하지 못한 결과 빈부격차가 갈수록 커졌고, 이런 상황은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켰다.

이 글은 위화의 소설 『제7일』에 나타난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 인간’에 관해 고찰해 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첫째, 사회주의 시장경제 속의 불평등이 작품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경제적 인간의 죽음은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죽음이 어떻게 경제적 요소와 연결되며 죽음에 이르렀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셋째,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과 평등지향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작가의 중국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작가가 지향하는 이상을 탐색해 보았다.

이 글은 ‘문화정치경제’가 이미 하나의 통일체로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중국사회의 문화와 정치와 경제의 관계가 사회주의 시장경제 안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6A3A01045347).

에서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에 그 의미를 둔다.

【주제어】 위화, 『제7일』, 불평등, 경제적 인간, 정치경제문화,

1. 들어가는 말

21세기의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가입과 함께 2008년 베이징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유인 우주선 선저우(神舟:Shen Zhou)호의 비행 성공, 또한 2010년에는 상하이엑스포(EXPO)의 원만한 개최와 함께 계속되는 고속성장을 이루었다. 2010년 여름에는 중국이 마침내 일본을 제치고 세계 경제 순위에서 2위를 차지하여, 미국과 함께 세계를 지배하는 두 개의 국가(Group of Two) 중 하나가 되었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정식 회원이 되면서, 이로써 중국 기업들의 대외 신임도가 높아지고 해외 자본 투자 기회가 확대되면서 중국 경제가 급격히 성장했다. 지금 중국은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성장의 결실을 제대로 분배하지 못한 결과 빈부격차가 갈수록 심해졌고, 이런 상황은 사회적 불평등의 현상을 더욱 심화시켰다.

위화(余華)의 『제7일(第七天)』은 중국이 개혁개방을 내세우고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실행한지 35년이 넘는 시점인 2013년에 출판되었다. 소설 『제7일』은 소설의 주인공인 양페이(楊飛)가 죽은 뒤 7일간 이승을 떠돌며 겪는 사건을 다룬다. 위화(余華)는 마오쩌둥(毛澤東)시대의 사회주의 발전 과정은 그 속도가 완만했고 경제적 효율이 낮았지만 사회적 ‘차이’가 끊임없이 축소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덩샤오핑(鄧小平)이 개혁개방을 제창하고 3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도시와 농촌 간 차이는 더 커지게

되었고, 심각한 빈부격차로 인해 인민들은 빈곤과 기아가 중국 도처에 만연하게 되었다고 비판하였다.¹⁾

위화의 『형제(兄弟)』 출간 이후, 7년 만에 나온 『제7일』은 주인공 화자(話者)인 ‘나’(양페이)가 ‘죽은 자’, 즉 망자(亡者)이다. 작가는 소설의 주인공을 왜 ‘죽은 자’로 설정하였으며, 죽은 자의 관점으로 중국 사회를 바라보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여러 인간 군상(群像)을 기억하며 소환하였을까? ‘죽은 자’의 시선으로 사후(死后)세계를 떠돌며, 잔혹한 중국의 현실을 작품 속에 드러낸 작가의 의도는 무엇 때문이었을까? 또한 『제7일』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죽음은 대부분 자연사가 아니라 경제적 여건이나 환경으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점이다. 중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 인간’의 죽음들은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7일』을 살펴보고자 한다.

위화의 『제7일』에 관한 국내의 기존 연구논문은 다음과 같은 논문이 있다. 심혜영의 「위화(余華)의 『제7일(第七天)』 — 공간 사유, 상상력의 특징과 희망의 정념」은 소설 속에서 그려지는 이승과 저승의 세계, 공간사유와 상상력에 중점을 두었고, 윤영도의 「정동의 관점에서 바라본 21세기 위화론 — 잔혹과 황당을 중심으로」는 중국의 사회적 변화가 가져온 작가-독자의 정동적(affective) 변화와 관련하여, 문화사회사적 맥락에서 ‘황당’과 ‘잔혹’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황정일의 「위화(余華) 『제7일』의 평등론」은 소설 속에서 그리고 있는 삶과 사후세계에 대한 불평등의 ‘차이’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즉, 개혁개방 30년이 된 시점에서 심각한 빈부격차와 도시와 농촌의 격차와 차이에 관한 평등론에 대한 분석이다.

이 글은 위화의 소설 『제7일』에 나타난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 인간’에 관해 고찰해 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소설 『제7

1) 위화, 「차이」, 『사람의 목소리는 빛보다 멀리 간다』, 김태성 옮김, 문학동네, 2012, 205~211.

일』을 ‘경제’라는 키워드로 들여다보면서, 작품 속의 이승이나 안식의 땅에 가기 전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경제적 인간’(호모 이코노미쿠스)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인간의 삶과 죽음에 경제가 얼마나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첫째, 사회주의 시장경제 속의 불평등이 작품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경제적 인간’의 죽음에서는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죽음이 어떻게 경제적 요소와 연결되며 죽음에 이르렀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셋째,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평등지향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작가의 중국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작가가 지향하는 이상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 글은 ‘문화정치경제’가 이미 하나의 통일체로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중국사회의 문화와 정치와 경제의 관계가 사회주의 시장경제 안에서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에 그 의미를 둔다.

2. 사회주의 시장경제 속의 불평등

장편소설 『제7일』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주인공 화자(話者)인 ‘나’(양페이)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자’라는 점이다. 소설은 전체 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인공 양페이가 죽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7일 동안 이승을 떠돌며 겪는 사건과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즉 ‘망자(亡者)’의 입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 하에서 생활하다가 죽어가는 중국인과 중국사회의 현실을 말하고 있다.

작가인 위화는 왜 ‘죽은 자’의 관점으로 중국사회의 부조리한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살아있는 주인공이 아니라 ‘죽은 자’의 눈으로 중국 사회를 바라보면 작품을 창작하고 표현할 때 어떤 장점이 있는 것일까?

위화는 “소설의 배경은 사후 세계이나, 『제7일』은 현실에서 일

어나는 일을 다뤘다. 사망한 후를 시점으로 택한 이유는 객관적으로 사회를 그릴 수 있어서이다. 주인공이 살아 있는 시점에서 썼다면, 단면만 묘사하는 데 그쳤겠으나 망자의 눈으로 묘사함으로써 사건을 좀 더 입체적으로 그릴 수 있었다. 현재 중국에서는 급속한 경제 발전의 부작용으로 불평등이 드러나고 있다. 불평등을 소설로써 다루고 싶었다.”²⁾라고 인터뷰에서 말하고 있다. 위화는 자본주의 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에는 불평등이라는 문제가 존재하며, 중국도 예외가 아님을 말하고 있다. 즉 위화가 주인공 화자를 ‘죽은 자’의 관점으로 서술한 주요한 이유는 중국 사회 현실을 좀 더 객관적이고 입체적으로 그려낼 수 있다는 것과 중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의 부작용으로 드러나는 불평등의 문제를 소설 속에서 다루고 싶었다는 점이다.

1978년 12월 중국이 개혁개방(改革開放)을 내세우며 ‘사회주의 시장경제론’을 채택한 지 벌써 40년이 넘었다. 개혁개방을 뒷받침하는 이론은 바로 ‘사회주의 시장경제론’이다. 사회주의 중국에서 일반적 사회주의 이론을 구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자본주의적 요소들, 즉 시장 기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사회주의 시장경제론의 핵심이다. 개혁개방 초기에 덩샤오핑을 중심으로 한 개혁파들은 현 사회주의 단계에서 중국이 당면한 최대의 문제는 생산력 발전이라고 전제한 뒤 생산력 증강에 기여할 수 있는 것만이 진정한 마르크시즘이라고 강조했다.³⁾ 이에 따라 생산력 증강과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적 요소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논리가 개발되었으며, 경제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경제발전과 현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기능을 도입해 기존의 계획경제 체제를 개혁하기 위해 개혁파들은 1980년대에 ‘사회주의 초급단계론’과 ‘사회주의 시장경제론’을 제시했다. 이후 사회주의 시장경

2) <http://ch.yes24.com/Article/View/23217>

3) 박형기, 『덩샤오핑-개혁개방의 총설계사』, 살림, 2007, 23.

제론은 1992년 공산당의 정식 강령으로 채택됐다. 사회주의 시장 경제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치는 사회주의인데 경제는 자본주의라는 것이다. 중국은 명목상 사회주의 국가지만 어느 자본주의 국가보다 더욱 자본주의적인 나라이다.

중국 내에서는 불평등 정도가 빠르게 심화되고 있는 것은 과도 기적 상황으로, 사회 안에서 고소득자가 빠르게 늘어나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며, 1992년 덩샤오핑이 제창한 이른바 ‘선부론(先富論)’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문제는 이런 불평등이 줄어들기 보다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2000년대 들어 중국 지도부가 선부론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균부론(均富論)’과 ‘조화사회(和諧社會)’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을 만큼 불평등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⁴⁾

중국 내에서 사회불평등은 크게 세 축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첫째로 도시와 농촌의 격차 확대, 둘째로 지역간 불균형의 확대, 그리고 셋째로 도시 부유층·기업관리자층과 일반 노동자의 격차 확대가 그것이다.

그렇다면 중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런 사회 불평등은 소설 속에서는 어떻게 그려지고 있을까? 다음은 소설 『제7일』의 제1장인 첫째 날에 펼쳐지는 풍경이다.

귀빈구역의 화제는 수의와 유골함이었다. 그들이 입고 있는 것은 모두 최고급 명주 수의로, 손으로 직접 수를 놓은 화려한 무늬가 눈에 띄었다. 그들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수의의 가격을 말했는데, 여섯 명 모두 2만 위안이 넘었다. 그러고 보니 차림새가 전부 궁중에 사는 사람들 같았다. 이어서 그들은 자신의 유골함에 대해 이야기했다. 모두 장미목 재질에 정교한 무늬가 조각되어 있으며 6만 위안이 넘는다고 했다. 유골함의 명칭마저 단향궁전, 선학궁, 용궁, 봉궁, 기린궁, 단향사릉으로 호화스럽기 그지없었다.⁵⁾

4) 백승욱, 『세계화의 경계에 선 중국』, 창비, 17.

5) 위화, 『제7일』, 문현선 옮김, 푸른숲, 2013, 19~20.

우리 쪽에서도 수의와 유골함에 관해 이야기가 오갔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은 사람들은 인조견사에 천연 면사가 섞인 1천 위안 이하의 수의를 입고 있었다. 유골함은 측백나무나 잡목 재질에 조각은 없었고 가장 비싼 게 8백 위안, 가장 싼 게 2백 위안이었다. 하지만 유골함의 이름만큼은 ‘고향 회귀’, ‘불후의 명성’등으로 또 다른 기풍이 있었다.....플라스틱 의자에 앉은 대기자들도 전부 수의를 입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낡고 하얀 중국식 앞트임 잠옷을 입었을 뿐이다.....초라하긴 해도 플라스틱 의자 쪽에서는 그런대로 섞여 있을만했다.....내게는 유골함이 없었다. ‘고향 회귀’, ‘불후의 명성’ 같은 값싼 유골함마저 없었다. 나는 고민에 빠졌다. 내 유골은 어디로 가야 하지? 망망대해에 뿌려질까?6)

시장이 들어왔다.....“시장님, 최고급 귀빈실에서 좀 쉬십시오”.....시장이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는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을 따라 걸어가자 대기실 안쪽의 커다란 문이 양쪽으로 천천히 열렸다. 문은 시장이 들어간 뒤에 다시 서서히 닫혔다.

소파쪽 귀빈들은 아무 말이 없었다. 최고급 귀빈실이 소파 귀빈 구역을 압도했으니, 돈이 권력 앞에서 스스로 초라해진 것이다.7)

위의 대화들은 주인공 ‘나’(양페이)가 죽은 첫째 날에 빈의관 대기실의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자신의 시신이 화장되어지는 순서를 기다리며, 대화를 나누는 망자들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위의 대화 속에는 세 층위의 사회계층이 있다. 첫째는 ‘귀빈 구역의 사람들’이다. 그들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어서, 빈의관 대기실에서도 소파 쪽에 앉아있고, 손으로 직접 수를 놓은 최고급 명주 수의를 입고 있으며, 수의 가격만 해도 인민폐 2만 위안이 넘는다.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자면, 인민폐 2만 위안은 한화(韓貨)로 340만원에 해당된다. 또한 그들의 유골함은 6만 위안이 넘는다고 하니, 환산하면 유골함 하나에 한화로 1,000만원이 넘는 셈이다. 둘째는 ‘플라스틱 의자 쪽의 사람들’이다. 이들은 일반 인민들로서 인조 견사나 천연 면사가 섞인 1천 위안(한

6) 위화, 『제7일』, 20~21.

7) 위화, 『제7일』, 27.

화 17만원) 이하의 수의를 입고 있으며, 유골함도 가장 비싼 것이 8백 위안(한화 13만 6천원), 가장 싼 것이 2백 위안(한화 3만 4천원)이었다. 주인공 ‘나’는 수의를 살 돈도 없어서, 앞이 트인 하얀 잠옷을 입고 왔지만, 플라스틱 의자 쪽에 섞여 앉아 있을 수는 있었다. 그러나 나는 유골함을 마련하지도 못할 정도의 사회 하층민이다, 셋째는 ‘최고급 귀빈실에 속하는 사람’으로 권력의 최상층에 있는 시장이다. 소파 구역에 앉아서 값비싼 수의와 고급 유골함을 샀다고 자랑하던 부유한 사람들이었지만, 권력자 앞에서는 초라해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중국사회의 ‘최상층 권력자’와 ‘부유한 자’들, 그리고 ‘돈이 없는 가난한 자’들로 세 개의 사회층위를 이루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다.

위화는 인터뷰에서 “자본주의 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에는 불평등이라는 문제가 존재한다. 평등을 지향한 소비에트에도 현실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지 않았다.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중국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 이후로 생산양식에서 자본주의를 추구하면서 불평등 문제가 심해지고 있다. 경제성장의 혜택이 바다 주변의 대도시에 집중되면서 도시와 농촌 간 격차가 커졌다. 도시 내에서도 계층 분화는 빨라졌다. 도시로 일자리를 찾으러 온 농민이 도시빈민으로 전락하는 농민공(農民工)의 등장은 이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⁸⁾라고 하였다. 또한 위화는 “『제7일』은 완전히 허구가 아니라 현실에 바탕을 뒀다. 작가로서 현실에 관심을 가지는 게 당연하다. 나와 비슷한 세대의 작가들은 대개 현실을 주시한다. 소설로써 실제 현실을 다루는 게 쉽지만은 않다. 지금 중국은 소설보다 실제 모습이 좀 더 황당하다. 현재 독자는 소설을 읽으며 이건 현실 이야기이구나 하겠지만, 미래의 독자가 읽는다면 앞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황당한 시대를 살았구나 싶을 것이다. 소설이 아무리 황당해도 중국 현실을 따라가지는 못한

8) <http://ch.yes24.com/Article/View/23217>

다.”⁹⁾고 하였다.

우리 플라스틱 의자 쪽은 여전히 묘지에 관해 두런두런 이야기 하고 있었다. 모두 요즘은 집보다 묘지가 비싸다며, 외지고 비좁은 공원묘지에서 1제곱미터의 가격이 3만 위안을 넘는데다 소유기한도 25년에 불과하다고 한탄했다. 집값이 비싸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70년은 소유할 수 있지 않느냐고. 대기자의 일부는 불공평하다며 화를 내고, 일부는 깊은 수심에 잠겼다. 25년 뒤에는 어떡하나, 하고 걱정하는 것이었다. 25년 뒤면 묘지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를 텐데 가족들이 돈 낼 능력이 없으면 자기 유골이 밭에 비료로 뿌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앞줄에 앉아 있던 대기자가 애통해했다. “죽어서도 제대로 죽을 수가 없군!”¹⁰⁾

소설에 언급된 위의 대화를 통하여 중국 공원묘지의 가격이 1제곱미터에 3만 위안(한화 5백만 원)이 넘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묘지의 소유기한도 25년이므로, 만일 25년 후에 가족이 돈이 없으면 묘지에 편히 누워있을 수도 없는 현실을 “죽어서도 제대로 죽을 수도 없다!”고 하며 한탄하고 있다.

그런데 『제7일』에 등장하는 주인공 양페이는 위에서 언급한 세 개의 사회계층에도 들지 못한다. 돈이 없는 자 중에서도 최하위층(底層)에 속하는 것이다. 양페이는 수의도 마련하지 못하여 앞이 트인 하얀색 잠옷을 입고 빈의관에 왔으며, 유골함도 없다. 더구나 그가 빈의관으로 떠나오기 전에 그의 집 대문에는 “열흘 넘게 붙어 있는 전기세와 수도세 납부 독촉 통지서”가 붙어 있었고, 그의 휴대폰은 “요금을 내지 못해 벌써 두 달 전에 끊긴”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소설의 주인공 양페이는 막 태어난 채로 기차 철로에 떨어져있는 ‘나’를 양아버지 양진바오(楊金彪)가 주워서 길러준 것이다. 주인공 양페이는 결혼도 하고 직장도 있었으나, 이혼한 후 아내가 떠나고 양아버지가 불치병에 걸려, 양아버지의 병구완을 위해 집도 팔고 직장을 그만 둔 다음 병원 근처에 작은

9) <http://ch.yes24.com/Article/View/23217>.

10) 위화, 『제7일』, 27~28.

가게를 냈지만, 결국 양아버지가 말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만다.

직장도, 집도, 가게도 잃은 나는 의기소침해졌다. 통장에 잔액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발견했을 때 앞으로의 생활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마흔한 살이니 보내야 할 시간이 아직도 많았다¹¹⁾

통장에 잔고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일자리를 찾아 나서다가 철거현장에 혼자 앉아 부모를 기다리고 있는 어린 아이 정샤오민(鄭小民)을 만나고, 탄가네 음식점에 들어가 국수를 먹으려다가 식당의 탁자에 놓인 신문에서 이혼한 아내인 리칭(李靑)이 자살했다는 기사를 보는 것과 동시에 그가 앉아있던 식당의 주방 쪽에서 불이 나고 폭파되면서, 주인공 ‘나’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 대학까지 다니고 직장까지 다니던 주인공이 사회 최하층으로 전락하기까지의 과정이 너무나 신속하고 심지어는 황당하기까지 하다.

위화는 『제7일』의 첫째 날에서 주인공 양페이가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묘사하면서, 빈의관 대기실을 통하여 죽은 자들의 세계에서든 시장이 들어갈 수 있는 최고급 귀빈실과 소파 쪽 귀빈구역, 그리고 플라스틱 의자 쪽에 앉을 수 있는 일반 인민의 구역으로 층위가 나뉘어짐을 그려내고 있다. 현실사회에서의 빈부격차와 불평등이 사후세계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중국사회의 현실을 죽은 자의 관점으로 표현하고 있다.

3. ‘경제적 인간’의 죽음

2001년 11월 10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회의에서 중국은 143번째로 회원국이 되었다. 중국의 WTO 가입은 1970년대부터 시작된 중국의 대외개방형 시장 경

11) 위화, 『제7일』, 33.

제 지향 개혁이 일단락되었음을 보여주며, 향후 신자유주의적 세계질서에 대한 편입이 가속화될 것임을 보여주는 근거이기도 하다. 중국의 WTO 가입에 대해 주류경제학에 입각한 다수의 견해는 중국경제의 합리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중국이 세계 수준으로 발전하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¹²⁾ 그렇지만 반대 견해도 적지 않아, 중국의 WTO 가입은 토착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세계 경제에 대한 종속을 심화하고, 농업 파탄을 불러오며, 실업률을 대폭 높여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었다.¹³⁾

WTO가입은 고속성장 이면에 숨겨진 중국의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킬 개연성이 높다는 우려도 적지 않게 제기되었다. 현재 중국의 사회적 불평등은 크게 보아 도시와 농촌, 지역간 격차의 확대, 그리고 일반 노동자와 경영관리자층 격차 확대에 기인한다.¹⁴⁾

중국은 2001년 11월에 WTO에 가입하고, 2007년 3월에는 물권법(物權法)¹⁵⁾을 통과시켰다. 물권법은 2007년 3월 16일, 제10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은 국가 기본 경제제도를 유지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재화(재산)의 귀속을 명확히 하고, 재화의 효용을 발휘하며, 사람의 권리인 재산권을 보호하며, 헌법에 근거하여 법규를 제정한 것이다. 이 물권법이 통과된 후로, 토지공유제를 견지하고 국유재산을 지키면서도, 사적 소유권과 조화되는 법질서를 구축하였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이루어낸 후에 중국

12) 백승욱, 『세계화의 경계에 선 중국』, 창비, 2008, 145~146.

13) 韓德強, 「中國加入世界組織的利弊、動力及爭論」, 『中國與世界』, 2001年, 10月號; 백승욱, 『세계화의 경계에 선 중국』, 146. 재인용.

14) 백승욱, 『세계화의 경계에 선 중국』, 146.

15) 물권법(物權法)은 소유권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재화에 대한 지배 관계를 규정하는 재산법을 말한다.

과 중국인의 자부심은 매우 높이 치솟았다. 2010년 여름, 중국은 마침내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 되어, 세계를 지배하는 두 개의 그룹(Group of Two) 중에 하나인 G2가 된다. 지금 중국은 미국을 견제하는 유일한 국가가 되어, 미국과 무역 전쟁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제조업 국가가 되었고,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이 되었으며, 세계 최대 외환 보유국가이자 국내총생산(GDP) 연 6%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선택한지 40년이 넘는 시점에서 중국의 고속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중국사회의 양극화라는 어두운 면도 심화되고 있다.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다양한 학설 중에 현대의 노동 이데올로기를 촉발한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은 아담 스미스가 처음 내놓았고, 이 이론은 기업이 노동자들로부터 어떻게 ‘유용한 능력과 재능을’ 획득할 수 있는지를 논의했던 이론이었다. 그 후, 제이콥 민서(Jacob Mincer)와 시어도어 쉘츠(Theodore Schultz)등은 신고전주의 경제학을 인간 개인의 행위에 적용시켜, 사람들을 더 이상 시민, 학생, 환자, 직원 같은 대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학설을 제시했다. 대신 그들은 다른 모든 요소를 초월한 사회적 범주인 ‘인적자본’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¹⁶⁾ 인적자본은 경제적 성향을 지닌 개인으로서, 자신의 경제적 가치에 투자하고 이를 개선하는 데 전념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삶 자체’가 미래의 소득을 창출하고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상업적 프로젝트이다.

중국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것은 그 이전의 계획경제 시대일 때의 국가의 각 인민에 대한 직업 분배와 직장에서의 주택의 분배 등의 문제가 사라지고, 노동이 ‘자율성’을 띠면서, 직업도 개인이 구하고, 주택도 개인이 사는 시대로 전환되어, 더 이상 국가가 직업을 분배해주지 않으며, 고용이 ‘개인화’되고, 이전에는

16) P. 플레밍,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죽음』, 한스미디어, 2018, 266.

국가가 부담하던 노동비용들이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된다. 즉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이 ‘노동 자율성’의 의미는 ‘네가 알아서 살아가라’는 것이다.¹⁷⁾

근 40년 만에 중국은 마오쩌둥 시대의 계획경제에서 덩샤오핑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바뀌면서, 계획경제 시대에 국가가 분배해주던 직장과 소속된 직장에서 배분해주던 주택제도가 없어지고, 이제 광활한 광야에서 각자도생하여 직장도 구하고, 주택도 구해야 하는 시대로 내몰리게 되었다. 그 결과 중국은 전대미문의 격차가 존재하는 국가가 되었다.

호모 이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라고 불리는 ‘경제적 인간’이란 오로지 경제적 합리성에만 기초를 두어 개인주의적으로 행동하는 인간상이며 경제인(經濟人)을 의미한다. 사회주의 국가이든 자본주의 국가이든 현대인은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경제적 활동을 해야 하고, ‘경제적 인간’의 범주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중국의 문학평론가 홍즈강(洪治綱) 교수는 2005년에 출판된 『위화 평전』에서 1986년에서 1989년에 나온 그의 작품에 자연사가 아닌 방법으로 죽은 인물이 무려 29명이나 나온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제7일』은 21세기에 쓴 장편소설이나, 이 작품에도 피냄새가 풍긴다. 자살, 사고사 등 위화가 묘사하는 죽음은 현재 중국사회의 모순과 밀접하다. 『제7일』은 소설로써 현실을 다루겠다는 위화의 창작관이 투영된 작품이다.¹⁸⁾

위화의 『제7일』의 서사배경은 죽은 자들의 ‘사후 세계’이다. 이 사후 세계는 ‘죽어서도 몸 널 곳이 없는 이들의 땅’으로, 묘지가 없고 유골함도 없어서 안식의 땅으로 건너가지 못하는, 소설 속의 하층민들이 머무르는 『제7일』속의 특정한 공간이며, 작가 위화가 만들어낸 상상의 공간이다. 『제7일』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17) P. 플레밍,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죽음』, 265.

18) <http://ch.yes24.com/Article/View/23217>

대부분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그들의 죽음의 방식이 특이하다. 작품 속 인물들이 순조롭게 삶을 살다가 자연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살을 하거나 사고사를 당하게 되는데, 그것이 경제적 이유와 경제적 환경의 압박으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항상 자신감이 넘쳤던 그녀가 처음으로 위축된 모습을 보인 순간이었다. 그녀가 불안하게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그 사람이 이혼했다고, 자신을 위해 이혼한 거라고, 그와 잘 통하니 함께 있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다시 한 번 그가 자신을 위해 이혼한 거라고 말했다.....나는 계속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녀를 잃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나와 함께라면 편안하고 평범한 삶을 살 뿐이지만 그와 함께라면 멋지게 사업을 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았다.¹⁹⁾

나는 얇게 썬 과일을 천천히 먹으면서 누군가 탁자에 두고 간 그날의 신문을 펼쳤다. 대충 몇 페이지를 넘겼을 때, 커다란 사진 한 장이 내 눈길을 붙잡았다. 여전히 아름다운 한 여자의 상반신 사진이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신문 위에서 나를 보았다. 나는 속으로 그녀의 이름 '리칭'을 불렀다. 이어서 기사 제목을 읽었다. 리칭이라는 여성 부호가 어제 자기 집 욕조에서 손목을 그어 자살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한 고위 관료의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그의 정부라서 참고인 조사에 데려가기 위해 조서관이 찾아갔다가 자살한 것을 발견했다고 했다.²⁰⁾

『제7일』의 제2장인 둘째 날에는 주인공 양페이와 그의 전처인 리칭에 관한 이야기가 서술되고 있다. 위의 첫 번째 인용문에서는 양페이의 아내였던 리칭이 미국 출장길에 비행기 안에서 만난 박사이자, 아내와 아이가 있는 유부남을 사랑하게 되어, 양페이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장면이다. 리칭이 양페이를 떠나는 결정적인 이유는 '박사 유부남'과 함께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고, 부유한 삶에 대한 욕망이 깊이 내재해 있기 때문이었다. 특이한 것은 양페

19) 위화, 『제7일』, 70.

20) 위화, 『제7일』, 41.

이와 리칭이 사랑을 하기 시작한 것은 한 회사에 같이 다녔던 사내커플이었는데, 사랑의 시작은 양페이가 아니라 리칭이 먼저였다는 점이다. 양페이를 열렬히 좋아하고 적극적인 사랑으로 구애를 표현한 것도 리칭이었는데, 마음이 변한 것도 리칭이 먼저였다.

위의 두 번째 인용문은 리칭이 집안의 욕조에서 자살하는 장면이다. 리칭은 ‘박사 유부남’과 결혼한 뒤에 성공한 듯 보였다. 텔레비전 인터뷰에도 그녀가 나오고, 신문과 잡지에서 그녀에 대한 기사가 나올 정도로 뉴스인물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 또한 자살로 인해 죽은 자가 되어 ‘사후 세계’에서 양페이를 만나게 된 것이다. 그 ‘박사 유부남’은 “침을 둔 것으로도 모자라 밤업소를 전전하며 아가씨를 찾았고, 리칭은 성병에 걸리고 별거를 시작했다”고 하였다. 게다가 회사를 조사한다는 소문이 돌자마자 그 ‘박사 유부남’은 호주로 도망을 갔다는 것이다. 리칭은 부유한 삶에 대한 욕망의 허상에 매달려 결국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된 것이다. 리칭의 죽음은 경제적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으며, ‘경제적 인간’의 죽음이라고 말하기에 충분하다.

류메이라는 젊은 여자가 남자 친구한테 진품이 아닌 짝퉁 아이폰4S를 선물로 받고는 극도로 상심한 나머지 투신 자살했다. 20여일 전 지면을 뜨겁게 달군 뉴스였다.²¹⁾

그녀는 미용실에서 일하면서 남자 친구를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3년 동안 미용실 세발 직원과 음식점 종업원이라는 고정된 일과 비정기적인 일을 했다. 다섯 차례 월세가 쏘는 곳으로 셋집을 옮기다가 마지막에는 지하실에 거주했는데, 문화대혁명 시기에 만들어졌다가 폐기된 방공호인 그곳은 도시 내 최대 규모의 지하 거주지였다. 기사에 따르면 도시 방공호에는 최소 2만여 명이 살고 있으며, 쥐처럼 지하에서 나와 하루 동안 일한 뒤 다시 지하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들을 ‘쥐족’이라고 부른다고 했다.²²⁾

21) 위화, 『제7일』, 162.

『제7일』의 제4장인 넷째 날에 등장하는 류메이(劉梅)는 남자친구에게 짝퉁 아이폰4S를 생일 선물로 받고, 극도로 상심하여 거주하는 도시의 랜드마크인 58층 건물에서 투신자살을 했다고 신문에 보도되었다. 그러나 유골함도 없고 묘지도 없어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하던 양폐이가 넷째 날에 만난 사람이 바로 투신자살한 류메이였다. 그녀도 묘지가 없어 헤매고 있는 듯이 보였다. 양폐이가 이전에 살았던 셋집에 류메이도 살았고, 그녀는 옆방 여자였던 것이다. 두 혼령은 류메이가 죽은 날에 대해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신문에서는 “네 남자친구가 진짜 아이폰이 아니라 짝퉁 아이폰을 사줘서 자살했다”라고 보도 되었다고 하니, 류메이는 “그런게 아니라, 남자친구가 나를 속여서 그랬다”고 했다. “차라리 아무것도 안줬다면 나도 화내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속이는 건 안 되죠. 신문에서 헛소리한 거예요”라고 대답했다.

류메이와 남자친구인 우차오(伍超)는 3년 동안 미용실과 음식점에서 고정된 일과 비정기적인 일을 했고, 셋집을 옮겨 다니다가 지하 거주지인 도시 방공호에까지 이르러 ‘쥐족(鼠族)’이 되었다. 중국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면서 지역 간, 도농 간, 계층 간의 양극화와 소득 불균형을 초래하였고 실업과 빈부격차 등의 사회 불안정이 증가하면서²³⁾ 인민에게 보장되었던 기본적 권리들이 축소되었다. 불안정한 고용체제로 비정규직에 종사하거나 직업이 없는 즉 신세대 농민공들이 늘어났으며 이들은 가중되는 경제난으로 집세를 부담하지 못해 점차 거리로 내몰리게 되어 도시 방공호에서 거주하며 ‘쥐족’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류메이의 죽음도 남자친구인 우차오가 자신을 속여서 화가 나서 죽었다고는 하지만, 류메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아이폰4S를 소유하고 싶은 류메이의 물질적 욕망이며, 경제적 환경과

22) 위화, 『제7일』, 163.

23) 백승욱, 「위기의 중국 노동자」, 『세계화의 경계에 선 중국』, 창비, 2008, 59.

요인이 그녀의 죽음에 간접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우차오는 신분증을 내고 신장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신체검사와 피검사를 마친 뒤 조직형이 맞는 사람을 기다렸다. 그렇게 그는 또 다른 지하생활을 시작했다.....그들이 신장을 파는 것은 목돈을 빨리 벌고 싶어서였다. 몇 년 동안 힘겹게 벌어야 신장 하나를 파느니만 못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장을 판 이후의 생활을 상상하곤 했다. 좋은 옷을 사 입고 아이폰을 살 수 있다고, 고급 호텔에서 며칠을 묵을 수 있다고, 고급 식당에서 몇 끼를 먹을 수 있다고 했다. 상상을 끝낸 뒤에는 초조함에 빠졌다.²⁴⁾

어떤 사람이 신장 적출 수술이 안전한지 모르겠다고 걱정하자 그가 베테랑다운 어조로 그건 단언하기 어렵다고, 완전히 운이라고 말했다. 신장브로커는 모두 양심이 없다면서 양심이 있으면 이런 일을 할 리 있겠냐며, 그들은 돈을 아끼기 위해 외과 전문의를 부르지 않는다고, 외과 전문의는 비싸기 때문에 신장을 적출할 때 수의사를 부른다고 말했다.²⁵⁾

류메이의 남자친구인 우차오는 여자친구인 류메이가 58층 건물의 30층이 넘는 곳의 외벽에서 투신자살 할 때, 고향에서 병든 아버지의 병간호를 하고 있었다. 나중에 도시로 돌아 온 우차오는 여자친구인 류메이의 자살 소식을 알게 되고, 신장 하나를 팔면 슈메이(鼠梅: ‘쥐순이’라는 의미, 여자친구인 류메이의 QQ공간에서의 닉네임)에게 묘지를 사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차오는 왼쪽 신장 하나를 인민폐 3만 5천 위안(한화 6백만원)에 팔았다. 신장을 적출한 후, 우차오는 “몸이 자신을 떠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자신이 류메이의 묘지를 직접 고를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지하 방공호에서 함께 살았던 친구 샤오칭(肖慶)에게 “베개 밑에 있는 3만 3천 위안으로 슈메이의 묘지와 묘비, 그리고 유골함을 마련해달라고 부탁했다. 남은 2천 위안은

24) 위화, 『제7일』, 261~262.

25) 위화, 『제7일』, 263.

자기가 버티다 살아날 경우 청명절에 성묘갈 때 쓰도록 남겨달라”고 했다.

샤오칭 역시 교통사고로 나중에 사후 세계에 들어오게 되고, 그곳에서 슈메이를 만나 우차오가 그녀를 위해 묘지를 사주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고, 이 말을 들은 슈메이는 흐느껴 울게 된다. 묘지가 없어 안식의 땅으로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슈메이가 곧 여기를 떠날 것이라고 조용조용 이야기 했다. 여기 머무르는 사람들 중에 안식의 땅(묘지 속)으로 떠난 사람은 여지껏 없었다고. 염을 마친 슈메이는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면서, 신장을 팔아 자신에게 묘지를 마련해준 남자친구 우차오에 대한 회한의 말을 남겼는데,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그를 버려서는 안됐는데.”라고 하였다.

원래부터 돈이 적어서 하루에 한 끼만 먹었는데도 두 달이 지나자 돈이 거의 떨어졌어요. 일자리를 찾아야겠다고 말했더니 그는 싫다고, 다시는 무시당하기 싫다고 하더군요.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이 없고, 돈이 없으면 굶어 죽는 수밖에 없다고 했더니 굶어 죽더라도 무시당하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울었어요. 정말 슬프게 울었어요. 그한테 화가 나서 온 게 아니라 이 사회가 너무 불공평해서 울었어요.²⁶⁾

안식의 땅인 묘지로 들어가면서, 류메이가 하는 말은 중국 사회가 너무도 불공평하여 울었다는 점이다. 『제7일』 여섯 째 날에 류메이가 안식의 땅으로 떠났는데, 우차오가 사후 세계-‘죽어서도 몸을 널 곳이 없는 이들의 땅’-로 들어온 것은 『제7일』의 일곱 째 날이었다. 류메이를 만나지 못한 우차오는 무척 슬퍼했지만, “네가 묘지를 사준 것에 대해 류메이가 무척 좋아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개혁개방으로 중국사회에도 자본주의적 욕망을 꿈꾸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 욕망이 좌절될 때 사람이 택할 수 있는 가장 극단

26) 위화, 『제7일』, 289.

적인 선택은 자살이다. 뒤르켐은 『자살론』에서 자살이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제7일』에도 이런 유형의 자살이 등장한다. 도시 빈민으로서의 자신의 처지를 통감하고 고층 건물에서 몸을 던지는 류메이가 바로 그 인물이다.²⁷⁾ 류메이의 죽음은 도시에서 하루하루 벌어 힘겹게 살아가는 도시빈민의 비극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위의 예문들에서 등장하는 류메이의 죽음도 우차오가 신장을 팔아서 죽음에 이르게 된 것도 모두 중국 경제발전의 불균형으로 인해 계층 간 불평등이 심화되어, 중국 인민들은 사회로부터 소외계층으로 전락하고 좌절하게 된 ‘경제적 인간’의 죽음의 양상들이다. 프랑스의 경제학자 다니엘 코옌은 중국이 이제는 사회 계층의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로 돌변했으니, 중국이 서양식 세계로 진입하려 하는 지금이야말로 개인의 행복과 사회 발전 사이의 근본적인 상관성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진단한다.²⁸⁾

4.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과 평등지향

왕후이(汪暉)는 “역사적으로 볼 때 초경제적 사회 세력, 특히 정치적 권력의 간섭이 없었다면 시장경제의 탄생은 불가능했을 것이며, 시장 경제가 자연적 진화의 결과가 아니라 만들어진 고안물”이라고 이해한다.²⁹⁾ 그리고 자본주의를 자유시장도 시장규칙도 아니며 반(反)시장적 힘으로 받아들이는 동시에, 정치와 경제는 명확하게 분리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권력의 시장화와 시장의 권력화’를 일종의 전형적인 자본주의적 현상으로 파악한다.³⁰⁾

27) <http://ch.yes24.com/Article/View/23217>

28) D. 토옌, 『호모 이코노미쿠스』, 박상은 옮김, 예세, 145.

29) 왕후이, 「현대성 문제에 관한 대답」, 『죽은 불 다시 살아나』, 김태규 옮김, 삼인, 2005, 185.

30) 왕후이, 「현대성 문제에 관한 대답」, 『죽은 불 다시 살아나』, 61.

이런 인식을 통해 왕후이는 중국의 현실을 진단하면서 중국의 불평등 문제는 경제문제인 동시에 정치적 문제라고 파악하고 있다. 왕후이가 볼 때 중국의 개혁개방 과정에서도 시장을 사회에 도입한 것은 중국 인민들의 시장적 본성에 의한 것이나 자연적인 과정이 아니라 국가가 의도적으로 주도한 것이다.³¹⁾

그렇기 때문에 왕후이는 ‘중국의 불평등 문제를 시장을 통해서 기회를 제공하고 국가의 개입 없이 부정부패 문제 등을 해결한다’는 것은 오류일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여 중국의 시장주의자들을 비판하는 동시에 현재 중국에 중요한 것은 국가의 해체가 아니라 국가의 민주화이며 경제 영역, 즉 재화의 생산 과정에 대한 사회의 민주적 통제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는 임노동자들의 종속적 지위를 변화시키고 이들이 사회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한 생활조건을 균형 있게 만들고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³²⁾

위화의 『제7일』에는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과 정부가 인민에게 폭력을 가하고 억압하는 현실을 반영해내고 있다.

아줌마는 죽기 3일 전,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를 찾아 시골로 내려간 그 날 아침에 우리 도시의 추악한 일면을 보았다. 농산물 시장에서 장을 본 다음 집으로 돌아가느라 다리를 건널 때 강물에 갇힌아이의 시체가 떠다니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오전 내내 두 기자와 10여 명의 시민이 스물일곱 구의 영아 시체를 찾아냈다. 그중 여덟 구의 발에는 우리 도시 어느 병원의 표식이 끼워져 있었다. 나머지 열아홉 구에는 그것마저 없었다.³³⁾

또한 표식이 없는 열아홉 구의 시체는 산아제한 정책에 따라 강제 유산

31) 하남석, 「왕후이(汪暉)의 정치경제학적 사유의 특징—칼 폴라니(Karl Polanyi)와 세계체제론의 수용을 중심으로」, 『중국현대문화』, 제77호, 2016, 153.

32) 왕후이, 「현대성 문제에 관한 대답」, 『죽은 불 다시 살아나』, 78~9.

33) 위화, 『제7일』, 144.

된 6개월 정도의 태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만한 표정으로 산아제한은 국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스물일곱 구의 영아 시체는 의료 쓰레기이므로 병원에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고, 쓰레기는 버려야 하는 거라고 말했다.³⁴⁾

중국정부가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한 것은 1980년대부터이다. 80년대와 90년대에 중국에서 출생한 바링허우(80后)와 류링허우(90后)는 ‘1가구 한 자녀’ 정책으로 태어난 아이들이다. 40년 가까운 세월동안 1가구 한 자녀 정책을 유지해오던 중국은 지난 2016년에 ‘1가구 두 자녀’로 정책을 변화시켰다.

위의 예문에서 강물에 갇난아이의 시체가 떠있는 것을 발견한 리웨진(李月珍) 아줌마는 『제7일』의 주인공 양페이(楊佩伊)가 마음 속으로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며, 양페이를 성장시킨 어머니이기도 하다. 양페이를 기차 철로에서 주워온 양아버지 양진바오(楊進寶)가 동료의 아내인 리웨진의 젖을 동양하여 양페이를 길렀던 것이다. 리웨진은 미국으로 이민가기 며칠 전 영아 시체 27구를 발견하고 이를 신문사에 알렸는데, 그 과정에서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사망하였다. 소설 『제7일』의 셋째 날에는 국가의 산아제한 정책으로 인해 강제 유산된 영아의 시체는 의료 쓰레기이므로 잘못이 병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오만한 표정으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병원의 사무실 주임이 등장한다. 생명이 되지 못하고 시체가 된 27구 영아의 죽음을 병원 당국의 관리자는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도 지켜주지 않은 채, 의료 쓰레기로만 여기는 잔혹한 현실이 반영된 것이다.

또 하나의 장면은 정부 공안당국이 공권력을 남용하여 한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사건에 대한 것이다.

아내를 죽였다고 인정한 건 어쩔 수 없어서였습니다. 경찰이 저를 매달아 놓고 때리면서 인정하라고 욕박질렀거든요. 얼마

34) 위화, 『제7일』, 145.

나 맞았는지 소변과 대변이 흘러나오고, 두 손이 묶인 채 이틀을 매달렸더니 피가 통하지 않아 손가락 네 개가 까매졌어요. 경찰이 괴사할 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거꾸로 매달아놓고 때렸습니다. 두 다리를 위로, 머리를 아래로 매달아놓고 때리는데 제일 아픈 곳이 몸이 아니라 눈이었어요. 짜디짠 땀이 눈으로 흘러 들어가면 바늘로 눈동자를 찌르는 것처럼 아팠지요.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인정한 겁니다.³⁵⁾

‘남실바람 미소를 짓는 사내’에게는 정신병에 걸린 아내가 있었다. 아내가 집을 나간 지 사흘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처가에서는 남편인 그가 죽었을 것으로 단정하고 공안국에 그를 신고하였다. 그 과정에서 경찰들이 정신병에 걸린 아내를 죽였다고 사내를 고문하자, 극심한 고문을 견디지 못한 사내는 “자신이 아내를 죽였다고 어쩔 수 없이 인정하게 된다.” 공안국의 고문이 너무 심하여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정신병에 걸린 아내를 죽였다는 이유로 경찰은 그 사내를 총살했는데, 나중에 6개월 후에 아내가 집으로 돌아오는 여처구니없는 일이 전개된다.

제가 총살되고 6개월 후 정신병이 있는 아내가 갑자기 집으로 돌아왔다더군요. 더럽고 해진 옷차림에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더러운 얼굴을 하고는 저희 집 앞에서 쉬지 않고 헤헤거리더라요.....그곳 사람들이 마침내 제가 억울하다는 것을 알았지요. 부모님과 형 내외는 제가 불쌍하다고 이틀을 울었습니다. 정부에서 배상금으로 50여만 위안을 지급했고 가족들은 제게 아주 좋은 묘지를 마련해주었지요.³⁶⁾

그리하여 ‘남실바람 미소를 짓는 사내’의 집에 대해 정부가 50여 만 원(한화 8천 5백만 원)을 배상을 해주게 되어, 그의 집 식

35) 위화, 『제7일』, 223-224.

36) 위화, 『제7일』, 225.

구들이 그에게 묘지를 마련해 주었으나, 사내는 8년째 묘지에 들어가지 않고 사후 세계에서 떠돌고 있다. 이 일화는 중국 정부의 공권력 남용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왕후이가 앞에서 언급한 국가의 민주화가 왜 더욱 더 필요한지를 절감하게 한다. 국가가 배상해준 50여 만 원이 적지 않은 금액이기는 분명하지만, 한 인간의 생명을 어찌 돈으로 환산할 수가 있겠는가. ‘남실바람 미소를 짓는 사내’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억울한 죽음을 당했으니, 권력을 가진 정부의 공권력 앞에서 힘없는 일반 인민들이 억압당하고 소외되어 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7일』에서는 작가가 지향하는 유토피아의 공간이 그려지는데, 바로 ‘사후 세계’라는 작가의 상상력의 공간이다. ‘죽어서도 몸 널 곳이 없는 이들의 땅’에 대해 작가는 이 장소는 『제7일』 서사의 거점이며, 만약 이 장소가 없었다면 이 소설을 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³⁷⁾ 『제7일』에서 죽음을 맞이한 사회 최하층의 사람들은 묘지를 마련할 돈이 없어 저승으로 건너가지 못하고, 사후 세계에 머물러 있게 되는데, 그곳은 바로 ‘죽어서도 몸 널 곳이 없는 이들의 땅’이다.

내가 그에게 말했다. 가자, 저기 나뭇잎이 너한테 손을 흔들고 바위가 미소 짓고 강물이 안부를 묻잖아. 저곳에는 가난도 없고 부유함도 없어.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원수도 없고 원망도 없어.....저기 사람들은 전부 죽었고 평등해.

“저곳은 어떤 곳인가요?”

그가 물었다.

“죽었지만 매장되지 못한 자들의 땅.”

내가 대답했다.³⁸⁾

37) 尹維穎, 「余華一個詞評『第七天』: 借屍還魂」, 『晶報』. 新華網, 2013年
http://big5.xinhuanet.com/gate/big5/news.xinhuanet.com/book/2013-08/14/c_125164188.html.

38) 위화, 『제7일』, 314.

중국사회의 부조리한 현실을 차갑게 그려내는 『제7일』에서 작가가 유일하게 따뜻하고 평등한 공간이라고 말하는 곳이 ‘죽어서도 몸 널 곳이 없는 이들의 땅’인 ‘사후 세계’이다.

위화는 “나는 쓰면서 현실 세계의 냉혹함을 느꼈고, 사납게 썼다. 그래서 따뜻한 부분이 필요했고, 지극히 선한 부분이 필요했으며, 이는 내게 희망을 주고, 독자에게 희망을 주었다. 현실 세계가 사람을 실망시킨 뒤 나는 아름다운 죽은 자들의 세계를 쓴 것이다. 이 세계는 유토피아도 아니고, 도화원도 아니다. 하지만 무척 아름답다.³⁹⁾”라고 했다.

5. 나오는 글

이 글은 위화의 소설 『제7일』을 ‘경제’라는 키워드로 분석하고자 시도하였다. 중국사회의 불평등과 ‘경제적 인간(호모 이코노미쿠스)’의 죽음이라는 관점에서 작품을 분석하고자 했다.

위화는 “내게 어떤 욕망이 있었다. 우리 삶 속 부조리해 보이지만 실은 사실인 이야기를 모아서 절제된 길으로 쓰는 것이다. 나는 7일의 방식을 찾아냈다. 방금 죽은 사람을 다른 세계에 진입시켜 현실 세계를 뒤집힌 그림처럼 촌촌히 드러내고 그림자를 선명하게 하는 것이었다.”⁴⁰⁾ 작가는 2013년 즈음의 부조리한 중국 현실을 그려내고 싶었다고 한다.

이 글은 위화의 『제7일』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사회주의 시장경제 속의 불평등에 대한 것이다. 2013년은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시행한 지 35년쯤 되는 시기였고, 그 시대의 불평등한 사회의 구조들이 작품 속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둘째, ‘경제적 인간’의 죽음을 고찰해 보았다. 『제7일』에 등장하여 사후 세계로 진입하는 사회 각 계층 사람들

39) 위화, 『우리는 거대한 차이 속에 살고 있다』, 이옥연 옮김, 문학동네, 244.

40) 위화, 『우리는 거대한 차이 속에 살고 있다』, 238.

의 죽음은 어떤 방식으로든 경제적 이유와 경제적 환경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셋째,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과 평등지향에 대한 작가의 의식을 살펴보았다. 위화는 평등한 세상을 꿈꾼다. 빈부의 격차도 없고, 불평등도 없는 모두가 편안한 땅에서의 평온한 삶이 작가가 지향하는 이상향이다.

포스트사회주의의 기형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우차오가 자신의 신장을 매매하여 여자 친구인 류메이의 묘지를 사주는 하지만, 우차오의 마음에는 여자 친구인 류메이에 대한 순정한 사랑이 아직 남아있다. 또한 주인공 양페이를 길러준 양아버지 양진바오의 사랑도 빼놓을 수 없다. 빈부 격차가 심해지고 사회 불평등이 구조화되는 현실 속에서도 인간이 지향해야 할 따뜻한 세상과 평등의 땅을 작가는 잊지 않으려 하는 것이 아닐까.

참고문헌

- 김도희, 「중국 사회계층 구조의 변화와 최근의 특징 — 2000년대 사회계층 구조의 특징을 중심으로」, 『中蘇研究』 제43권 제1호, 2019.
- 김진공, 「위화 소설 연구의 몇 가지 문제」, 『중국현대문학』 제50호, 2009.
- 백승욱, 『세계화의 경계에 선 중국』, 창비, 2008.
- 심혜영, 「위화(余華)의 『제7일(第七天)』 — 공간사유, 상상력의 특징과 희망의 정념」, 『중국현대문학』 제82호, 2017.
- 윤영도, 「정동의 관점에서 바라본 21세기 위화론 — 잔혹과 황당을 중심으로」, 『중국현대문학』, 제73호, 2015.
- 위화, 『제7일』, 푸른숲, 문헌선 옮김, 2013.
- , 「차이」, 『사람의 목소리는 빛보다 멀리 간다』, 김태성 옮김, 문학동네, 2012.
- 이종민, 「위화(余華)의 새로운 글쓰기에 대한 고찰 — 『형제』속의 개혁개방 시대를 중심으로」, 『중국현대문학』 제45호, 2008.
- 전성욱, 「위화(余華) 소설의 한국 수용에 대하여」, 『중국현대문학』 제73호, 2015.
- 조형래, 「신소설의 ‘경제’와 ‘사회」」, 『한국문학연구』 제55집, 2017.
- 하남석, 「왕후이(汪暉)의 정치경제학적 사유의 특징 — 칼 폴라니(Karl Polanyi)와 세계체제론의 수용을 중심으로」 『중국현대문학』, 제77호, 2016.
- , 「1980-90년대 중국 시장화에 관한 정치경제 담론 비판」, 『中國研究』 제82卷, 2020.
- 황정일, 「위화(余華) 『제7일』의 평등론」, 『중국현대문학』 제72호, 2015.
- 余華, 『제7일』, 新星出版社, 2013.
- 肖雪冰, 「余華《第七天》的底層敘事策略研究」, 『文學教育』, 2020, 07.
- 李佳桐, 「論余華《第七天》中的敘事藝術」, 『文化學刊』, 2017年, 第6期.
- 陳博·史丹丹, 「仿真現實與臨界寫作—論余華的《第七天》」, 『廣西社會科學』, 2016年, 第5期.
- 衣茜茜, 「余華《第七天》中的新聞寫實與文學虛構」, 『佳木斯大學社會科學學報』, 2019年, 第37卷 第1期.

- 蔣雨晴,「論余華《第七天》里的“空間」,『MASTERPIECES REVIEW(名作欣賞)』,2018年(21).
- 楊帆,「從感覺的真實到現實的真實—從《第七天》論余華越來越當代性的現實寫作」,『MASTERPIECES REVIEW(名作欣賞)』,2017年(12).
- 續斷,「《第七天》依然是“余華”式的荒誕」,『互聯網周刊』,2019年(12).
- 陳思羽,「“經典”的延續與“當代”的蛻變—余華新作《第七天》評介」,『出版廣角』,2018年,總第311期.
- 常愛心,「談《第七天》的“新聞化”創作」,『北極光』,2013年.
- 鄭冬玲,「余華《第七天》的主題思想探析」,『文學教育』,2018,09.
- 黃敬軍,「“調轉”“突圍”及其限度—也評余華的《第七天》」,『MASTERPIECES REVIEW(名作欣賞)』,2020年,第5期.
- 蔡家園,「繼續“先鋒”與主體迷失—重讀余華的《兄弟》《第七天》」,『華中科技大學學報』,2017年,第31卷 第5期.

<Abstract>

Inequality and 'Homo Economicus' in Shown
in *The Seventh Day* by Yu Hua (余華)

Myoung-Hee KIM
(Jeonju Univ.)

The Seventh Day (第七天), by Yu Hua (余華), was published in 2013—30 years after China announced the reform and opened up and executed its socialist market economy. China continued its high-speed growth in the 21st century, join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hosting the Beijing Olympics successfully in 2008, conducting its first successful manned space (神舟; Shen Zhou) flight, and effectively organizing the Shanghai EXPO in 2010. However,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has been deepening because the benefits of the economic growth were not evenly distributed. Therefore, this situation led to the violation of human dignity beyond the social inequality phenomena.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tudy the social inequality and 'homo economicus' depicted in *The Seventh Day*, a novel by Yu Hua. First, this work tries to examine how inequality in the socialist market economy has been shown in the aforementioned work of fiction. Second, it tries to study how the death of the homo economicus, the fictional characters, is connected to the economic aspects. Third, it investigates the writer's critical perception of Chinese society and the orientation of his ideals through his analysis of the governmental policies and inclinations

toward equality.

The thesis is significant in that it examines how the cultural, political, and economic relationships of the Chinese society—which is already a combination of 'culture, politics, and economy' as a unified body—are interconnected in the socialist market economy.

Key Words: Yu Hua, *The Seventh Day*, Inequality, Homo economicus, 'Politics, economics, and culture'

심사완료일		
논문접수일: 2020.12.27.	1차 심사: 2021.01.01.	게재 확정일: 2021.01.04.
	2차 심사: 2021.01.01.	
	3차 심사: 2021.01.02.	